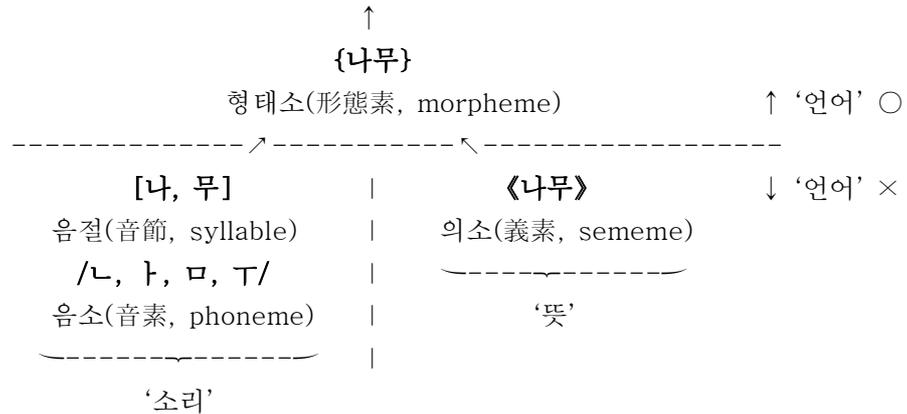




### 3. 언어 요소 단위

언어 성립에서 필수적인 소리와 뜻의 두 요소 가운데에서 음소(音素, phoneme)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고 의소(義素, sememe)는 뜻의 최소 단위이므로 음소나 의소는 단독으로 언어 요소의 최소 단위가 될 수 있지만 언어 구성의 최소 단위가 될 수는 없다.



### 4. 형태소 분석

형태소(形態素, morpheme)는 의미를 가진 언어 구성의 최소 단위이므로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 직전까지 분석할 수 있다.

- 1) ‘나무’는 <나무>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‘나’ 또는 ‘무’는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‘나무’는 형태소가 되지만 ‘나’ 또는 ‘무’는 형태소가 되지 못한다.
- 2) ‘너무’는 <지나치게>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, 이는 다시 <일정한 시간, 시기, 범위 따위를 벗어나 지나다>라는 의미를 갖는 ‘너ㅓ’과 <부사화>라는 의미를 갖는 ‘ㅌ’로 나눌 수 있으므로 ‘너무’는 한 형태소가 아니라 ‘너ㅓ’과 ‘ㅌ’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이다.
- 3) 일차적으로 언어는 음성으로 실현되고, 음성과 표기가 반드시 일대일 대응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태소 분석은 표기를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발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.

표기: 학자 여러분!  
 날개 없이 날 수 있어요?  
 별에서는 붉은색이 잘 날아요.  
 앞에 놓인 문체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요.

발음: 학자 여러분!  
 날개 업씨 날 쭈 이씨요?

벼테서는 불근새기 잘 나랴요.  
아페 노힌 문제가 무어신지 이야기헤요.

#### 4) 분석 예시

학<學> / 짜<者>

여러<許多> / 분<位>

날<飛> / 개<名詞化接辭>

업쓰<沒有> / ㅣ<副詞化接辭>

나<飛> / 르<冠形詞形語尾> / 쭈<方法>

\* ‘날’의 뒷말이 경음으로 발음되므로 ‘르’은 어간 발음 ‘르’이 아닌 관형사형 어미 ‘르’로 분석.

- 심을(심+을) 줄, 먹을(먹+을) 사람

- 불(보+르) 줄, 줄(주+르) 사람

\* 어간 발음 ‘르’은 탈락.

- 들(드+르 ← 들+르) 줄, 벌(머+르 ← 멀+르) 사람

이쓰<有> / ㄱ<平敍形語尾> / 요<相對尊待助詞>

벼트<陽光> / ㅅ<副詞格助詞> / ㄴ<對照助詞>

불ㄱ<紅> / ㄴ<冠形詞形語尾> / 새ㄱ<色> / ㅣ<主格助詞>

잘<容易>

나르<掉> / ㅏ<平敍形語尾> / 요<相對尊待助詞>

아프<前> / ㅅ<副詞格助詞>

노ㅎ<放> / ㅣ<被動接辭> / ㄴ<冠形詞形語尾>

문<問> / 제<題> / 가<主格助詞>

무어ㅅ<什麼> / ㅣ<敍述格助詞> / ㄴ지<疑問形語尾>

이야기<話> / 해(←하+여) / 요<相對尊待助詞>

\* ‘해’는 한 형태 ‘하’<爲>와 다른 한 형태 ‘여’<平敍形語尾>의 결합으로서 형태적인 융합이어서 분석 불가.

- 해(←하여), 했(←하엿), 돼(←되어), 났(←되엿).

- 네(←너의), 내(←나의).

#### 5. 형태소와 이형태

형태소(形態素, morpheme)는 하나의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형태(形態, morph)의 집합(集合, set)이며, 이형태(異形態, allomorph)는 한 형태소 안에 있는 여러 형태이다.

- 1) 형태소 표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하나는 / / 안에 모든 이형태를 나열하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{ } 안에 하나의 대표적인 이형태를 보이는 것이다.
- 2) 대표 이형태는 한 언어에서 분포가 넓고 다른 이형태의 도출이 자연스러운 이형태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/ 이형태 나열 /	{대표 이형태}
<學> /학(←학교), 향(←학문)/	= {학}
*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‘학’을 대표로.	
<者> /짜(←독자), 자(←청자)/	= {자}
* 평음이 파열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‘자’를 대표로.	
<許多> /여러(←여러 나라)/	= {여러}
<位> /분(←한 분), 뽀(←다섯 분)/	= {분}
* 평음이 파열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‘분’을 대표로.	
<飛> /날(←새가 날고), 나(←새가 나니)/	= {날}
* 미정의 음운 첨가보다는 기존의 음운 탈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‘날’을 대표로.	
<接辭> /개(←찌개), 깨(←덮개)/	= {개}
* 평음이 파열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‘개’를 대표로.	
<沒有> /업쓰(←없어), 업(←없고), 업(←없네)/	= {업쓰}
*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, 발음의 중화가 일어 나기 전의 ‘업쓰’를 대표로.	
<接辭> /ㅣ(←많이)/	= {ㅣ}
<語尾> /ㄹ(←할 일), ㄴ(←먹을 것)/	= {ㄴ}
* 미정의 음운 첨가보다는 기존의 음운 탈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‘ㄴ’을 대표로.	
<方法> /쑤(←할 수), 수(←하는 수)/	= {수}
* 평음이 관형사형 어미 ‘ㄹ’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‘수’를 대표로.	
<有> /이쓰(←있으니), 인(←있지만), 인(←있네요)/	= {이쓰}
*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, 발음의 중화가 일어 나기 전의 ‘이쓰’를 대표로.	
<語尾> /ㄱ(←먹어), ㅏ(←막아), 여(←하여)/	= {ㄱ}
* 분포가 음운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, ‘ㅏ’ 뒤에서 ‘ㄱ’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어 분포가 더 넓은 ‘ㄱ’를 대표로.	
<助詞> /요(←어서요), 뇨(←하면요)/	= {요}
* ‘ㄴ’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분포가 더 넓은 ‘요’를 대표로.	
<陽光> /벼ㅌ(←별에), 변(←별도), 변(←별만), 벼ㅌ(←별이), ㅌ(←햇별에), 뽀(←햇별도), 뽀(←햇별만), ㅌ(←햇별이)/	= {벼ㅌ}
*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, 평음이 파열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, 발음의 중화가 일어나기 전의 ‘벼ㅌ’를 대표로.	
<助詞> /ㅌ(←집에서)/	= {ㅌ}
<助詞> /ㄴ(←학교는), ㄴ(←집은), ㄴ(←난 몰라)/	= {ㄴ}
* 분포가 음운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, 미정의 음운 첨가보다는 기존의 음운 탈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, 앞말의 형태가 유지되는 ‘ㄴ’을	

대표로.

<紅> /불ㄱ(←불어), 북(←불다), 불(←불고),  
봉(←불네), 빨ㄱ(←길불어), 뽉(←길불다),  
빨(←길불고), 뽉(←길불네)/ ={불ㄱ}

\*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, 평음이 파열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, 발음의 중화가 일어나기 전의 ‘불ㄱ’을 대표로.

<語尾> /ㄴ(←맑은), ㄴ(←예쁜)/ ={ㄴ}

\* 미정의 음운 첨가보다는 기존의 음운 탈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‘ㄴ’을 대표로.

<色> /새ㄱ(←색이), 생(←색만),  
쌩(←혈색이), 썩(←혈색만)/ ={새ㄱ}

\*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, 평음이 파열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‘새ㄱ’을 대표로.

<助詞> /ㅣ(←밥이), 가(←나무가)/ ={가}

\* 분포가 음운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, 서술격 조사 ‘이’와 구별하기 위해 ‘가’를 대표로.

<容易> /잘(←잘못), 짤(←곧잘)/ ={잘}

\* 평음이 파열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‘잘’을 대표로.

<掉> /나ㄴ(←향수가 날고), 나(←향수가 나니)/ ={나ㄴ}

\* 미정의 음운 첨가보다는 기존의 음운 탈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‘나ㄴ’을 대표로.

<前> /아ㅍ(←앞을), 압(←앞도), 압(←앞만)/ ={아ㅍ}

\*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, 발음의 중화가 일어나기 전의 ‘아ㅍ’을 대표로.

<助詞> /ㄱ(←집에)/ ={ㄱ}

<放> /노ㅎ(←놓아), 논(←놓네)/ ={노ㅎ}

\* 마찰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‘노ㅎ’을 대표로.

<接辭> /ㅣ(←깎이다), 히(←떡히다), 리(←팔리다),  
기(←안기다)/ ={히}

\* 분포가 형태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, 사동 접사의 ‘이’와 구별하기 위해 ‘히’를 대표로.

<問> /문(←질문, 문답)/ ={문}

<題> /제(←제목), 쟈(←숙제)/ ={제}

\* 평음이 파열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‘제’를 대표로.

<什麼> /무어ㅅ(←무엇을), 무언(←무엇도),  
무언(←무엇만)/ ={무어ㅅ}

\*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, 발음의 중화가 일어나기 전의 ‘무어ㅅ’을 대표로.

<助詞> /ㅣ(←밥이다)/ ={ㅣ}

<語尾> /ㄴ지(←바쁘지), ㄴ지(←맑은지),

는지(←있는지)/ = {늘지}

\* 미정의 음운 첨가보다는 기존의 음운 탈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, 분포가 더 넓은 ‘느지’를 대표로.

<话> /이야기(←혼사 이야기), 니야기(←뒤틀이야기)/ = {이야기}

\* ‘ㄴ’ 첨가가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서 분포가 더 넓은 ‘이야기’를 대표로.

### 6. 형태소와 한국어의 표기 원칙

한국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형태소의 이형태 가운데에서 다른 이형태의 도출이 자연스러워서 선정한 대표 이형태를 적되, 한 이형태에서 다른 이형태의 도출이 자연스럽지 않고 발음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은 해당하는 환경에서 실현되는 이형태를 그대로 적는다.

/ 이형태 /	{대표 이형태}	‘표기’
/학, 향/	= {학}	‘학’
/짜, 자/	= {자}	‘자’
/여러/	= {여러}	‘여러’
/분, 뽀/	= {분}	‘분’
/날, 나/	= {날}	‘날/나’
	* ‘날’과 같은 표기로 [나는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나’로 표기.	
/개, 깨/	= {개}	‘개’
/업싸, 업, 엄/	= {업싸}	‘없’
	* ‘업싸’와 발음이 같고 종성을 아래에 적는 ‘없’으로 표기.	
/ㅣ/	= {ㅣ}	‘이’
	* ‘ㅣ’와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이’로 표기.	
/르, 늘/	= {늘}	‘을/르’
	* ‘늘’과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을’로 표기하되, ‘하을’과 같은 표기로 [할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르’로 표기.	
/쭈, 수/	= {수}	‘수’
/이싸, 인, 인/	= {이싸}	‘있’
	* 종성을 아래에 적는 ‘있’으로 표기.	
/너, 나, 여/	= {너}	‘어/아/여’
	* ‘너’와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어’로 표기.	
	* ‘조허’와 같은 표기로 [조하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조하’와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아’로 표기.	
	* ‘하어/하아’와 같은 표기로 [하여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여’로 표기.	
/요, 뇨/	= {요}	‘요’
/벼트, 변, 변, 벼트,		
빠트, 뽀, 뽀, 빠트/	= {벼트}	‘별’
	* 종성을 아래에 적는 ‘별’으로 표기.	

/케서/	= {케서}	‘에서’
* ‘케서’와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에서’로 표기.		
/느, 은, ㄴ/	= {느}	‘느’
/불기, 북, 불, 붕, 뿔기, 뿔, 뿔, 뿔/	= {불기}	‘뿔’
* 종성을 아래에 적는 ‘뿔’으로 표기.		
/느, ㄴ/	= {늘}	‘은/ㄴ’
* ‘느’와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은’으로 표기하되, ‘예 뻘은’과 같은 표기로 [예뻘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ㄴ’으로 표기.		
/새기, 생, 썩, 썩/	= {새기}	‘썩’
* 종성을 아래에 적는 ‘썩’으로 표기.		
/ㅣ, 가/	= {가}	‘가/이’
* ‘밥가’와 같은 표기로 [바비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ㅣ’와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이’로 표기.		
/잘, 짤/	= {잘}	‘잘’
/나르, 나/	= {나르}	‘날/나’
* 종성을 아래에 적는 ‘날’로 표기하되, ‘날느’와 같은 표기로 [나는] 발음 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나’로 표기.		
/아프, 압, 압/	= {아프}	‘앞’
* 종성을 아래에 적는 ‘앞’으로 표기.		
/케/	= {케}	‘에’
* ‘케’와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에’로 표기.		
/노ㅎ, 논/	= {노ㅎ}	‘놓’
* 종성을 아래에 적는 ‘놓’으로 표기.		
/ㅣ, 히, 리, 기/	= {히}	‘히/이/리/기’
* ‘깎히다’와 같은 표기로 [까끼다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ㅣ’와 발 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이’로 표기.		
* ‘팔히다’와 같은 표기로 [팔리다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리’로 표 기.		
* ‘안히다’와 같은 표기로 [안기다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기’로 표 기.		
/문/	= {문}	‘문’
/제, 쩌/	= {제}	‘제’
/무어ㅅ, 무언, 무언/	= {무어ㅅ}	‘무엇’
* 종성을 아래에 적는 ‘무엇’으로 표기.		
/ㅣ/	= {ㅣ}	‘이’
* ‘ㅣ’와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이’로 표기.		
/ㄴ지, 은지, 느지/	= {늘지}	‘은지/ㄴ지/느지’
* ‘느지’와 발음이 같고 앞말의 형태를 밝힐 수 있는 ‘은지’로 표기하되, ‘예뻘은지’와 같은 표기로 [예뻘지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ㄴ지’로 표기.		

\* ‘먹은지’와 같은 표기로 [먹는지] 발음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‘느지’로 표기.

/이야기, 니야기/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={이야기}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‘이야기’

7. ‘∅’형태(영형태, 零形態, zero morph) : 의미는 있는데 형태가 없는 것.

‘날개가 없이’의 ‘가’는 <주체화> 의미의 형태 : ‘가’형태.

‘손발이 없이’의 ‘이’는 <주체화> 의미의 형태 : ‘이’형태.

‘날개 없이’의 ‘날개’ 뒤에 <주체화> 의미의 ‘∅’ 형태가 있다고 가정 : ‘∅’형태.

‘손발 없이’의 ‘손발’ 뒤에 <주체화> 의미의 ‘∅’ 형태가 있다고 가정 : ‘∅’형태.

‘날개를 펴고’의 ‘를’은 <객체화> 의미의 형태 : ‘를’형태.

‘날개<sup>ㄴ</sup> 펴고’의 ‘ㄴ’은 <객체화> 의미의 형태 : ‘ㄴ’형태.

‘손발을 펴고’의 ‘을’은 <객체화> 의미의 형태 : ‘을’형태.

‘날개 펴고’의 ‘날개’ 뒤에 <객체화> 의미의 ‘∅’ 형태가 있다고 가정 : ‘∅’형태.

‘손발 펴고’의 ‘손발’ 뒤에 <객체화> 의미의 ‘∅’ 형태가 있다고 가정 : ‘∅’형태.

\* 형태소는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형태의 집합이므로 <주체화> 형태소는 ‘가’형태와 ‘이’형태 및 ‘∅’형태를 아우르는 말로서 /가, ㅣ, ∅/로 표시하거나 {가}나 {이} 또는 {∅}으로 표시할 수 있고, <객체화> 형태소는 ‘를’형태와 ‘ㄴ’형태 및 ‘을’형태와 ‘∅’형태를 아우르는 말로서 /를, ㄴ, 을, ∅/으로 표시하거나 {를}이나 {ㄴ} 또는 {을}이나 {∅}로 표시할 수 있다.

\* 형태(morph)는 개별적인 것을 지칭하므로 ‘가’형태, ‘이’형태, ‘를’형태, ‘ㄴ’형태, ‘을’형태, ‘∅’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, 형태소(morpheme)는 하나의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형태의 집합이므로 ‘형태소’란 말 앞에는 구체적인 개별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 없다. 예를 들어 의미를 나타내는 <주체화>나 <객체화>를 앞세워 <주체화> 형태소, <객체화> 형태소란 말은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 형태(morph)를 앞세운 ‘가’형태소, ‘이’형태소, ‘를’형태소, ‘ㄴ’형태소, ‘을’형태소, ‘∅’형태소(zero morpheme)란 말은 사용할 수 없다.

\* ‘가’형태 / ‘이’형태 / ‘를’형태 / ‘ㄴ’형태 / ‘을’형태 / ‘∅’형태 : ○  
  <주체화> 형태소 / <객체화> 형태소 : ○  
  ‘가’형태소 / ‘이’형태소 / ‘를’형태소 / ‘ㄴ’형태소 / ‘을’형태소 / ‘∅’형태소 : ×

8. 허형태(虛形態, empty morph) : 형태는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것.

좁쌀(←조<sup>ㅂ</sup>쌀)의 ‘ㅂ’은 형태는 있으나 의미가 없음 : 허형태.

송아지(←소<sup>ㅇ</sup>아지)의 ‘ㅇ’은 형태는 있으나 의미가 없음 : 허형태.

\* 허형태란 말은 형태는 있으나 의미가 없는 것을 일컬으므로 위의 ‘ㅂ’이나 ‘ㅇ’과 같이 의미가 없는 형태는 모두 허형태라 할 수 있으며, 형태소는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형태의 집합이므로 허형태소(虛形態素, empty morpheme)는 위의 ‘ㅂ’이나 ‘ㅇ’과 같이 의미가 없는 모든 형태를 아우르는 말로서 /ㅂ, ㅇ, .../으로 나열하거나 {ㅂ}이나 {ㅇ} 등과 같이 대표 이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.

\* 허형태, 허형태소 : ○

### 9. 언어 구성과 요소의 최소 단위

언어 구성 단위		언어 요소 단위	
구성의 최소 단위		소리의 최소 단위	뜻의 최소 단위
개별적:	형태(形態, morph)	음성(音聲, phone)	의미(義味, seme)
집합적:	형태소(形態素, morpheme)	음소(音素, phoneme)	의소(義素, sememe)
개별적:	이형태(異形態, allomorph)	이음(異音, allophone)	이의(異義, alloseme)

<끝> 고맙습니다.